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6월 호)

2025년 졸업식, 성대히 마치다

(사진: 2025년 졸업생들의 빛나는 순간)

CST가 Los Angeles로 이사한 후 두 번째 졸업식을 5월 20일에 무사히 또 성대히 마쳤습니다. CST 학생 수는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지난해보다 올해의 졸업생 수가 줄어 22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그중 8명(36%)이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한인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M.Div.: 장한나
D.Min.: 남인보, 오천수, 윤성은, 이상욱, 홍성찬, 한선종
Ph.D.: 김지훈

졸업생들의 자기소개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6월과 7월 뉴스레터에 연재됩니다. 올해에도 한인 학생 여러 명이 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총장상"은 각 학위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D.Min. 총장상 공동 수여: 오천수, 홍성찬
한인 동문회 상: 김지훈 (Ph.D.), 장한나 (M.Div.)
The Fellowship Seminarian Award: 장한나
기감 교육국 총무상: 남인보 (D.Min.)

올해는 한인 동문들에게 경사의 해입니다. 김웅민 목사(D.Min., '81)는 우수 동문상을 수상하였고, 신영각 목사(M.Div. '93)는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김웅민 목사와 신영각 목사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사진: 김웅민 목사, 올해의 우수 동문상 수상)

김웅민 목사(DMin, '81)는 40년 넘게 연합감리교회 한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한국에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은 연민, 정의, 그리고 소속감에 기반한 사역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에서 6개 교회를 섬기며, 그중 2개 교회를 개척했고, 하와이지방 감리사(2004-2010)와 서부 지역 한인 사역 코디네이터(2015-2022)를 역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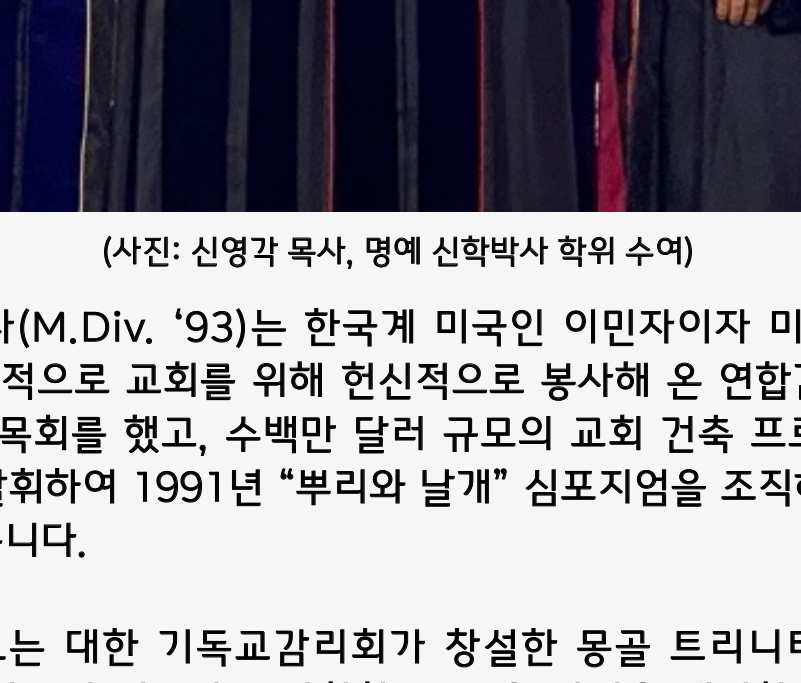
겸손과 깊은 신앙으로 잘 알려진 김 목사는 그의 목회지에서 평신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동체의 공감대를 강조하며, 평화를 증진한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지구촌 사역 목록 중에는 북한의 기근 당시 국수 공장을 설립하고, 브라질 선교를 지원하고,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의 보육원과 장애인 요양원을 돕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웅민 목사는 2013년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하여 18개 한인교회가 22개의 새로운 미자립교회에 지원하도록 도왔고, CST 국제협력처 모금 위원장을 맡아 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김 목사는 변혁적이고 정의 중심적인 목회적 리더십을 통해 CST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진: 신영각 목사, 명예 신학박사 학위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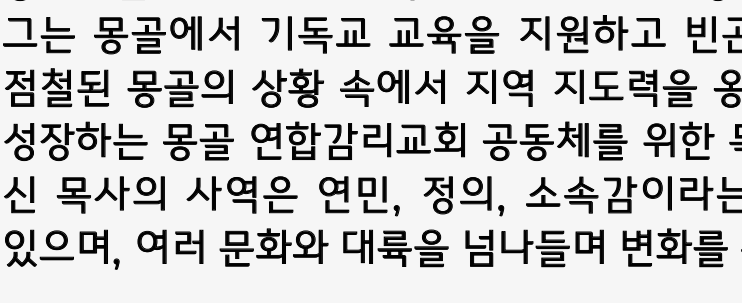
신영각 (다니엘) 목사(M.Div. '93)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이자 미 육군 참전용사이며, 198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는 여러 한인교회 목회를 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전국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1991년 "뿌리와 날개" 심포지엄을 조직하여 2세 목회 사역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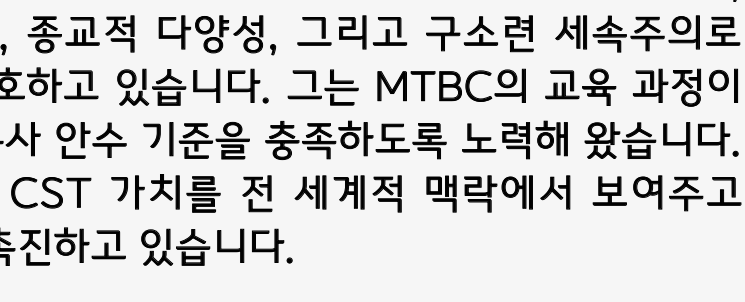
2022년 은퇴 후, 그는 대한 기독교감리회가 창설한 몽골 트리니티 성경대학(MTBC) 학장으로 취임하여 학교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신학교 간 협력을 증진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는 몽골에서 기독교 교육을 지원하고 빈곤,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구소련 세속주의로 점철된 몽골의 상황 속에서 지역 지도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MTBC의 교육 과정이 성장하는 몽골 연합감리교회 공동체를 위한 목사 안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신 목사의 사역은 연민, 정의, 소속감이라는 CST 가치를 전 세계적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문화와 대륙을 넘나들며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김남중 교수, 올해의 "최고 교수," 이경식 부총장 "최고 멘토" 상 수상)

CST 졸업식 중에 학생이 선출한 올해의 "최고 교수"와 "최고 멘토" 상이 있는데, 김남중 교수는 올해의 "최고 교수"상을, 이경식 부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멘토"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Ph.D. 과정 김지훈 목사)

〈사진: 김지훈 목사, Ph.D. '25〉

우선, 9년이란 박사과정의 긴 시간 동안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A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던 터라 쉴 틈 없이 매주 일정이 빡빡했었는데, 졸업하고 나니 여유로워진 일정만큼이나 마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저의 박사논문 주제는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료입니다. 한국에서 높은뜻교회에서 전임 목사로 사역할 때, 2010년부터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면서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석사 학위 후, 박사학위를 하러 CST에 온 후 박사 1년 차 때 동양선교교회에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공부하러 온 것이었지만, 동양선교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이후로는 직접 트라우마를 '겪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5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 2개 그룹이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소송을 건 상태였습니다. 이때 제가 받은 소송장과 TRO가 18개, 교회 소송까지 합쳐서 모두 22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소송이 진행되자, 갈등은 엄청났습니다. 교회를 소송한 교회 반대 측 그룹은 교회 은행 계정을 동결시켰고, 이에 목회자와 스태프들 30여 명이 5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부목사들의 영주권 진행을 취소시켜서, 실제로 한 목회자는 한국에 추방당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설교단에 있던 저를 교회 반대 측 사람이 밀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경찰이 빈번히 출동하여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2년 이상 지속되자 이제는 제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22개의 모든 소송도 3년 전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통일 선교 컨퍼런스'에서 박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미국 코스타 강의와 11월에는 도쿄 코스타에 주 강사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박사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논문을 마치며 가장 감사한 것은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 나눈 대화와 지도 교수님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논문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도움과 지지의 연대가 CST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학위를 마치는데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교수님들과 동료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D.Min. 과정 남인보 목사)

〈사진: 남인보 목사, D.Min. '25〉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클레어몬트 목회학박사 과정을 졸업한 남인보 목사입니다. 처음 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업을 하는 일이 정말 바른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쁜 교회 사역 가운데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도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중 코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학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쉽고, 적당히 하자라는 타협의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공부한 내용들은, 결코 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제 삶과 사역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 갔으며, 그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 잊혀 가고 있었던, 목회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고, 그 방향점을 다시 재수정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공부가 저에게 있어 정말 의미 있는 공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동료 목회자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사역으로 인해 동료 목회자들과의 만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동료 목회자들과 만나게 되었고, 각자의 사역, 생각, 목회에 대해 나누면서 새로운 도전과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서, 서로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학업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회에 전념하려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인내력을 주심으로 학업에 몰두하게 하시고, 학업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의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른 목회자로, 바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목회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D.MIN 과정 윤성은 목사)

〈사진: 윤성은 목사, D.Min. '25〉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제 삶과 목회, 그리고 신앙 전반을 깊이 성찰하게 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논문을 준비하며 겪은 수많은 대면과 질문, 기도와 눈물은 제 내면을 다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논문 주제로 다룬 "경험적 상호 의존적 환대를 지향하며: 부교역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는 제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으며 느꼈던 고통과 좌절은 제게 큰 혼란이었지만, 동시에 동료 목회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만난 부교역자들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외침이었고, 그들의 고통은 곧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지 학문적인 목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교회의 구조적 문제와 목회 현장의 억압,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직면하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환대'와 '상호 의존성'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개념들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며, 회복과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부교역자들과 담임목사, 성도 간의 상호 존중과 치유가 살아 숨 쉬는 목회 환경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부교역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체계와 상담 시스템 구축, 신학 교육 과정 내 정신 건강 교육 도입, 그리고 환대를 기반으로 한 예배와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려 합니다.

끝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아내와 두 아들(서준, 하준),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논문을 지도해주신 김남중 교수님과 김용환 교수님 그리고 연구 참여자로서 논문을 함께 써 내려간 일곱 명의 동역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임마누엘교회 김정국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명의 길로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소감문 (M.Div. 과정 장한나 전도사)

〈사진: 장한나 전도사, M.Div. '25〉

장하다, 장한 나!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M.Div. 학위를 마친 장한나입니다. CST 에서의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듬고 확장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사역을 이어가던 중, 더 넓은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신학 전통 속에서 소명을 재확인하고 싶다는 갈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CST에 입학하게 되었고, UMC와 함께하게 되었으며, 갈망에 대한 풍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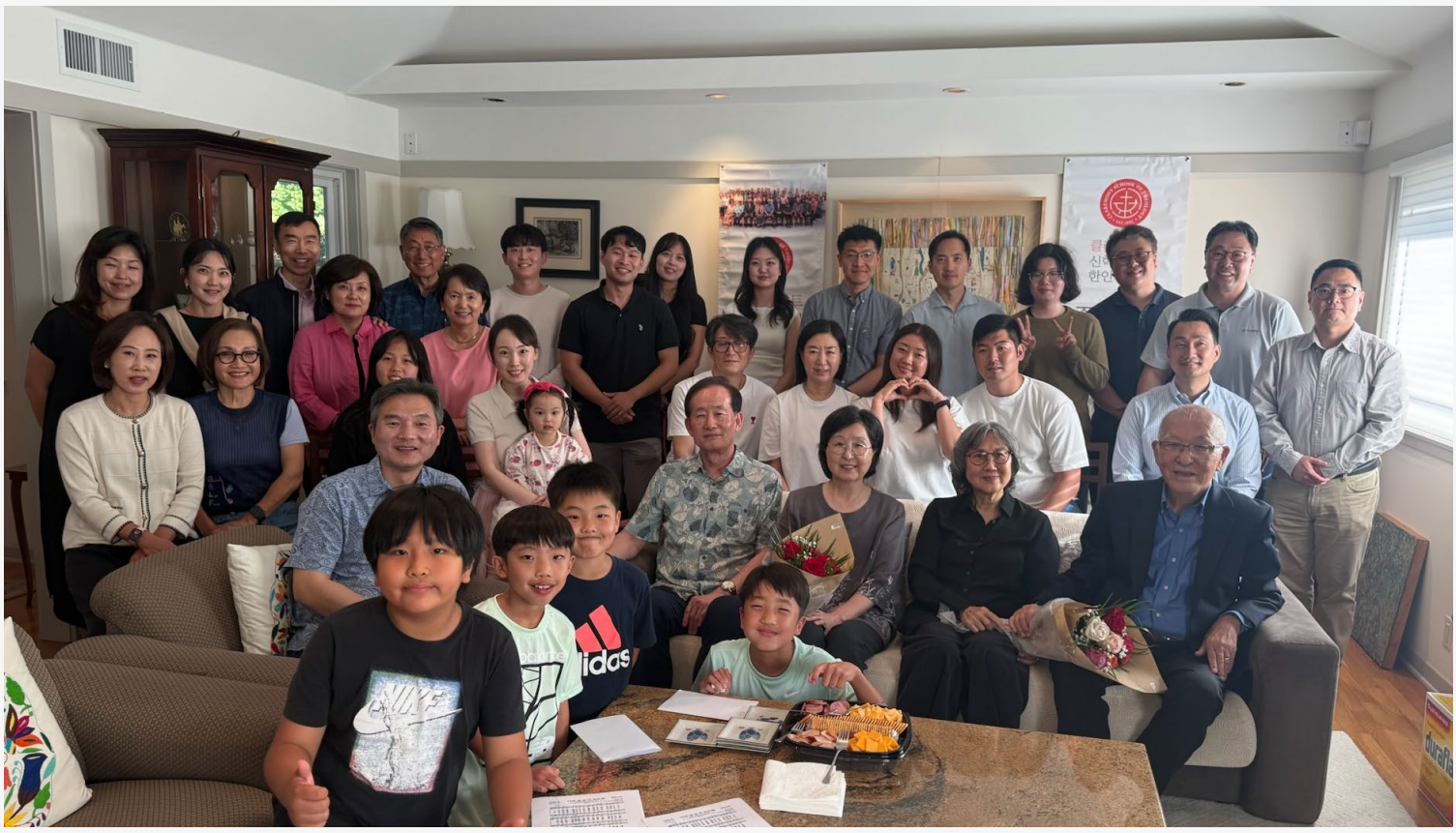
CST는 '공부하는 곳' 이상이었습니다. 정의와 자비, 그리고 소속감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위한 목회자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양성과 교차성안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연대는 이민자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젊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고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정 속, 허락된 모든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키워주신 할머니, 무한한 사랑과 지지로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셔주신 부모님, 특별히 교회와 사회 안에서 소명을 감당했던 여성 목회자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공부하고 사역했던 동료들, 저를 끝없이 질문하게 했던 친구들, 믿음 안에서 동행했던 목회 선배들은 저를 부르심의 길로 더욱 이끌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따뜻하게 품어준 교수님과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웃고 울었던 동료들, 그리고 저를 소중히 여겨준 공동체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개의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안수과정 가운데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여러 교회에서 초청 설교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부터 도시의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가 지닌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구체화해 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는 신실하게 안수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오는 6월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마련된 국제 에큐메니컬 프로그램 "청년 평화 순례(Young Adult Pilgrimage of Peace)"에 한인 연합감리교회 대표로 참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KMC), 연합감리교회(UMC), 그리고 세계감리교협의회(World Methodist Council) 간의 선교 협력과 평화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세계 평화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통찰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아픔과 희망을 세계 교회와 함께 성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젊은 세대의 역할을 더욱 깊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평화를 향한 목회"를 구체화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앞으로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학생회, 졸업·종강 예배 및 축하 모임 열어
Ph.D. D.Min. M.Div. 졸업생 8인 축하… 신영각 목사 설교, 김지훈·장한나 졸업 소감



〈사진: 이경식 부총장님 댁에서 열린 2025년 봄학기 종강 모임 단체사진〉

CST 한인학생회는 지난 5월 19일(월) 오후5시, 이경식 부총장 자택에서 2025년 졸업·종강 예배 및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졸업식 전날 학위를 마친 졸업생을 축하하고, 동시에 봄학기를 마친 재학생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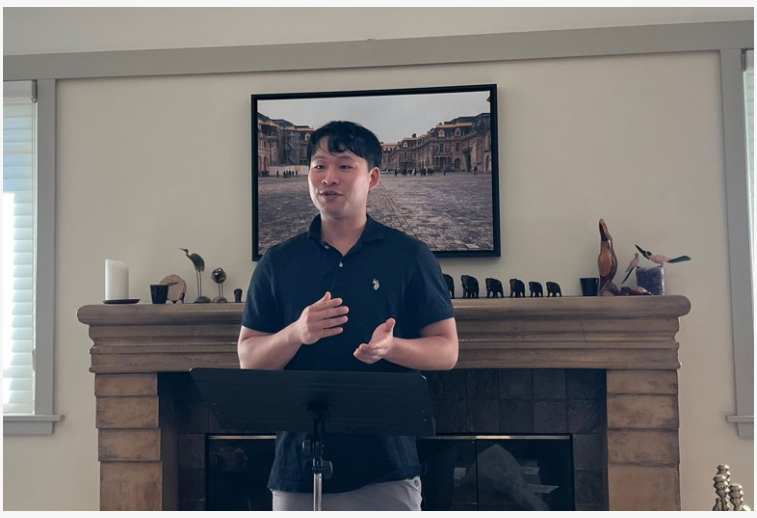
한인학생회 회장 송영한 전도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부회장 박성진 전도사가 대표기도를 맡고 이어 이번 졸업식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신영각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설교 후 김지훈(Ph.D.)과 장한나(M.Div.) 졸업생이 졸업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고, 우수 동문상을 수상하게 된 김웅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2025년도 봄학기 졸업자는 총 8명이다. 철학박사(Ph.D.) 학위는 김지훈, 목회학박사(D.Min.) 학위는 남인보, 오천수, 윤성은, 이상욱, 한선종, 홍성찬이며, 목회학석사(M.Div.) 학위는 장한나 졸업생이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졸업생이 참석해 직접 축하를 받았다. 예배 후 신영각 목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만찬이 이어졌다. LA갈비가 메인으로 제공된 식탁에서 참석자들은 졸업과 종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저녁까지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모임은 졸업생을 축복하고, 재학생과 함께 봄학기 마무리를 기념한 뜻깊은 자리였다. CST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길 소망한다.

〈사진: 종강예배 드리는 모습〉

종강과 졸업 예배, 함께한 기쁨의 시간



〈사진: 한인학생회 회장 송영한 전도사〉

〈사진: 신영각 목사 부부〉

〈사진: 김웅민 목사 부부〉

〈사진: 김남중 교수와 졸업생 장한나 전도사〉

〈사진: 김남중 교수와 졸업생 김지훈 목사〉

〈사진: 졸업예배 후 식사 시간〉

〈사진: 식사 후 담소 나누는 모습〉

〈사진: 국제협력처 팀 사진: 왼쪽부터 이경식 부총장, 송영한 전도사, 이혜인 전도사, 김남중 부학장〉
팀원인 손보화 목사는 당시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문상담 박사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과정 입학설명회

프로그램 소개

전문 상담 박사(DPC) 과정은 상담학 석사나 관련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과정으로써 교회, 지역 사회, 학교, 비영리 기관 및 글로벌 커뮤니티의 변화와 치유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학위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목회상담과 영성통합심리치료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CST는 많은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그중에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로서 종사하는 동문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CST는 이 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ST의 목회 상담 분야는 목회상담에서 영성통합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목회 또는 기독교적 상담만이 아닌 초종교적 영성통합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CST의 Ph.D.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학위입니다. 더 나아가 CST는 15년 이상 한인 목회자를 위한 한국어 박사 학위(D.Min.)를 제공해 왔으며, CST의 학위 과정은 충실한 내용,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유학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학위 과정은 여러분을 위한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 년의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CST의 전문 상담 박사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줌 입학설명회

줌 입학설명회 일정(한국 시간 기준)

6월 7일 (토) 오전 9시
6월 14일 (토) 오전 9시
6월 21일 (토) 오전 9시
6월 28일 (토) 오전 9시
7월 12일 (토) 오전 9시
7월 26일 (토) 오전 9시
8월 9일 (토) 오전 9시
8월 23일 (토) 오전 9시

학제에 관하여

DPC 과정은 총 36학점 과정이며
(한 과목당 4학점) 2년 동안 5세션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인턴십을 포함하여 3세션,
남은 2세션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졸업하는 학생은 CST 졸업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줌 계정

설명회 참석 줌 링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한국 교육부가 정한 바에 따라 (1) 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상담학 석사와 더불어 기초 신학 과목(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을 학부나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자 신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 신학 과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등록금과 장학금/논문

1.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3기생 입학은 7월 말까지, 4기생 입학은 1월 말까지 접수 받습니다.
   (한글로 제공하는 입학원서 작성 문서를 참고하세요.)
2. 등록금과 장학금 : 등록금은 한 학점당 미화 $1,100이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논문은 한글로 쓰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2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 위원들 지원, 완성 과정에 구술시험

교수진

교수진: 이경식, Frank Rogers, Jr., 정푸름, 유상희, 김용환, 김남중, 김정희, 김지훈

문의: 김민정 (minjung.kim@cst.edu / 010-3243-7568)

【정정 보도문】

본 뉴스레터는 지난 2025년 5월 20일 자로 발행된 『2025년 5월-B호 뉴스레터』 기사 「7년의 공부, 나를 알아가는 목회의 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은 바 있습니다.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공부를 시작한 2016년 1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임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경험한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보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민을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점차 목회자들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분량 제한으로 기고자 정진용 목사님께서 의도와 다르게, 당시 [하프타임*]으로 사역하셨던 특정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이러한 성향이 해당 교회의 목회자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편집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는 정 목사님께서 특정 교회나 특정 목회자를 지칭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당시 사역한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사과문을 보내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래의 취지는 일부 한인 이민교회들이 한국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이 교회 구조나 문화, 리더십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시각과 생각을 나누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특정 교회나 목회자를 겨냥한 비판이 아니었음을 강조드리며, 또한 특정 교회나 목회자를 폄하하거나 일반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사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집상의 실수로 인해 정진용 목사님께서 사역했던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께 오해와 혼란을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5월-B호 뉴스레터 편집팀

* 당시 사역했던 교회(당회)측 의견이며, 정진용 목사님에게 클레어몬트(CST)를 소개하고 추천서를 써주셨던 분은 당시 정진용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CST-D.Min. & CGU- Ph.D. 학위취득) 이었음을 알려오셨습니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5일 기준-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이종오 박사
이경식 부총장
이현재 목사
문봉장학재단(김병학 회장)
윌셔연합감리교회
Mr. Kenneth Jo
Mr. Jong J. Lee
박정은 박사
신영각 목사
서태원 목사 기념 재단 (서동영 장로)

* 성함은 기부일자 순 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5일 기준): **$501,208**

– **KEF 잔액**(1990.03. - 2025.5.) :	$2,491,654
– **KLS 잔액**(2018.10. - 2025.5.) :	$805,250
– **General Fund** (2024.03. - 2025.5):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챤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기준): **$12,2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